

신소설의 근대와 전근대

— 『鬼의聲』을 중심으로 —

권 보 드 래

- | | |
|-----------------------------------|---------------------|
| 1. 미개(未開)와 반개(半開) 사이: '가정 소설'의 문제 | 3. 근대적 세계 속의 설화적 시간 |
| 2. '鬼의聲'이 울린 시각 | 4. 낡은 질서와 새로운 수사학 |
| | 5. 융합된 균열, 그 사이 |

1. 미개(未開)와 반개(半開) 사이: '가정 소설'의 문제

임적이 임화는 「개설 신문학사」를 쓰면서 『血의淚』 대신 『치악산』을 “신소설의 효시”라 단언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은 『치악산』이 『만세보』 연재 소설이었다고 오인한 데서 비롯되었지만, 정작 1906년 7월부터 10월까지 『만세보』에 연재되었던 『혈의누』를 제치고 『치악산』을 ‘효시’로 꼽은 데 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인직 소설의 계보를 『치악산』에서 『鬼의聲』『혈의누』『백로주강상촌』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두고 “다음 작품에 올수록(...) 전대 소설의 영향을 더 많이 탈각하여 현대 소설으로 접근”¹⁾했다고 평가한 대목을 보면 그렇다. 여기서 임화는 서지(書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선후를 논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치악산』의 미성숙과 『혈의누』의 성숙을 논하며, 나아가 이인직 소설의 두 경향을 뚜렷이 분간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나름의 서지를 들어 『치악산』『은세계』『혈의누』『귀의성』『백로주강상촌』 순으로 작품을 조금 달리 배열²⁾한 후에도 논점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 “『치악산』은

1) 임화, 「개설 신문학사」, 『조선일보』 1940. 2. 2.

2) 전광용, 1986 『신소설 연구』, 새문사에서 『혈의누』, 『귀의성』, 『치악산』, 『은세계』.

가정 소설형에 속하는 작품이요, 『은세계』는 현대말로 하면 일종의 사회 소설³⁾이라는 것이 임화의 관점인데, “이 두 작품이 결코 동일한 경향의 소설이야”⁴⁾는 『치악산』류에는 『귀의성』 『백로주강상촌』이 속하고 『은세계』의 부류로는 『혈의누』가 있다고 한다. 이 두 가지 경향은 각각 “새로운 정신을 낳은 양식 가운데 담은” 절충과 “낡은 전통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이며 새로운 기원의 분립”을 표현한다. 『귀의성』 『치악산』이 전대 소설의 관습을 흡수·계승했던 반면 『혈의누』 『은세계』는 현대 소설로서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해야 했다는 것이다.

신소설의 경향을 이렇듯 크게 둘로 구분하는 시각에는 많은 논자들이 동의하는 듯 보인다. 이 둘 중 신소설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 어느 쪽인지에 대해서도 평가는 별로 갈리지 않는다. “가정 중심과 권선징악적 의미”⁴⁾가 신소설의 요체요 “본처와 첩 사이에 일어나는 싸움과 이로 인하여 생기는 가정 비극이 말하자면 신소설의 주제”⁵⁾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니, 신소설을 대표하는 작품은 『귀의성』 『치악산』 계열이라는 뜻이 된다. 민족 의식과 현실 의식을 보여주는 계열이야말로 고평해야 한다거나⁶⁾ 정치소설이 신소설의 본령이어야 했으리라는⁷⁾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는 결여를 인정한 위에서 펼치는 규범적 판단에 가깝다. 신소설은 전근대와 근대 사이의 과도기를 보여주는 양식이요, 그 양식을 대표하는 것은 전근대에 보다 가까운 이른바 ‘가정 소설’류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 그 중에서도 『귀의성』은 특히 문제적인 작품이었다. 가정 소설이라는 틀 내에서도 개화 사상을 보여주고 있는 『치악산』 등과는 달리 『귀의성』에는 “개화된 인물도 등장하지 않고 개화의 세계에 대한 이상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임화가 보기에 『귀의성』은 앞대목에서 제법 날카로운 비판적 안목을 발휘하고 있고 후반부의 복수담은 일본 신파극이나 탐정 소설의 영향을 드러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구소설

『백로주강상촌』의 순서가 옳음을 고증하였다.

3) 임화, 앞의 글, 『조선일보』 1940. 2. 15.

4) 조윤제, 「조선소설사 개요」, 『문장』 2권 7호, 159면.

5) 박영희, 「현대 한국문학사 (2)」, 28면.

6) 최원식, 1986 『한국근대소설사론』, 창작사.

7) 김윤식·정호웅, 1994 『한국소설사』, 예하.

적 양식에 구소설적 주제”를 벗어났다고 하기 어렵다. “후진하고 비속한 독자층의 애독물”에 그쳤을 따름이다.⁸⁾ 이러한 ‘가정 소설’의 이미지 때문에 신소설의 의의는 半開에서 未開로 결정적으로 추락한다. 미흡한 대로 근대 문학의 영역을 개척했던 『혈의누』 등에 비해 『귀의성』 류는 철저하게 전근대 글쓰기의 복제에 그침으로써 신소설의 가능성을 봉쇄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가정소설은 신소설의 말류요 왜곡으로서 정치·사회적 의식을 내비친 다른 갈래와 구분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평가였다. 이 평가의 근거는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살아 있는 듯 보이며, 따라서 이 시각을 정면에서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 글의 목적은 다만, ‘근대 미달’로 평가되고 있는 이른바 가정소설에서도 근대와 전근대는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으며 그 사이의 균열이 첨예하게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신소설 일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갈등’과 ‘균열’의 상황을 다시 살피려는 데 있을 따름이다. 『귀의성』이 아무 갈등 없이 전근대의 관습을 이은 것이 아니라 어떤 신소설보다도 빈번하게 균열의 계기를 노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 글의 관점이다.

2. ‘鬼의聲’이 울린 시각

전대 소설과 비교할 때 신소설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당대를 취재(取材)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1910년대 이후로는 “조선 중고시대”⁹⁾를 배경으로 한 소설도 적잖이 간행되었지만 당대성은 여전히 중요한 특징이었고 1900년대의 신소설은 예외가 없으리 만큼 철저하게 자기 시대에 몰두하였다. 더욱이 이때 당대성의 의미는 대단히 엄격하여, ‘소설을 쓰고 있는 바로 지금’과 서사 종결의 시점이 완전히 일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후분(後分)을 끝까지 밝히지 못한 까닭을 두고 “년 월 일이 저작자의 정필할 당시에는 이상 사실만 있었소”¹⁰⁾라고 쓰는 감각이 공공연하던 때였다. 1906년 7월부터 10월까지 연재되었던 『혈의누』 상편은 1902년 7월의 시점에서 일단락

8) 입화, 앞의 글, 『조선일보』 1940. 2. 23.

9) 이해조, 1912 『소양정』, 신구서림, 1면. 그밖에 비슷한 시기를 배경으로 한 『부용현』이나 1894년 이전에서 서사를 시작한 『원앙도』 등을 꼽을 수 있다.

10) 남궁준, 1913 『금의 쟁성』, 유일서관, 87면.

을 지으면서 “여학생이 고국에 돌아온 후”를 이어 쓸 수 있는 시간을 기약했으며¹¹⁾ 1908년 발행된 『은세계』는 고종의 양위 직후인 1907년 말의 시간대에서 미완인 채 끝났고¹²⁾ 1907년 『제국신문』에 연재된 『고목화』는 1900년 무렵에서 시작, 경부선·경의선이 모두 완공된 이후인 1906년 여름에서 마무리되고 있다. “실사(實事)가 유(有)”한 일, “현금의 있는 사람의 실지 사적”에 바탕하여 소설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당당하던 무렵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할 수도 있겠다.¹³⁾

1906년 10월부터 1907년 5월까지 『만세보』에 연재되었던 『귀의성』 역시 연재 무렵을 배경으로 한다. 춘천 군수를 지내던 김승지가 서울에 올라와 취임한 직위가 비서승이니 비서감(秘書監) 혹은 비서원(秘書院)이 있던 대한제국 시기가 배경임은 첫머리에서부터 밝혀진 일이고, 춘천집이 두 번째 자살 기도를 한 곳이 경성창고회사 앞 전차 철로에서였다고 하니 적어도 1899년 이후가 배경이며, 고영근이 12년 징역을 언도받았다는 사실이 언급되는 대목에서는 1904년 이후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다. 잠시 문제되는 대목을 보자. 살해 음모에 가담하기로 약조한 침모가 “낙동장신 이경하는 어진 도 닦으려는 예수 교인을 십이만명이나 죽였다는데(…) 그런 악독한 사람에게 벌역이 없었으니 웬일이요”(117)라며 점순이 유혹하던 말을 되풀이하자, 침모의 어머니는 “제가 잘될 정류으로 사람 죽이고 당장에 벌역을 입어서 만리타국 감옥서에서 열두 해 징역하고 있는 고영근의 말은 못 듣고, 사십년 전에 지나간 일을 말하는 것이 이상하구나”라고 대꾸한다. 대원군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 포도대장을 거꾸 지냈고 천주교도 박해를 주도한 이경하, 그는 1891년에 세상을 뜬 후 시호까지 추증받는 명예를 누렸고, 독립협회에 간여했던 고영근은 1903년 11월에 우범선을 암살한 후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영익 집안의 겸인(僉人)이었다가 황국협회 부회장과 만민공동회 회장을 차례로 지냈으며 이후 일본으로

11) 이인직, 1906 『혈의 누』, 광학서포, 94면.

12) 옥순과 옥남 남매가 귀국길에 오른 것은 1907년 7월 있었던 순종의 즉위를 보도한 신문 기사를 본 직후요, 고향에 도착한 것이 “서리 맞은 호박잎은 울타리에 달려 있”는 가을이며 절에 가 불공을 올리다 의병 무리와 만난 것이 이튿날의 일이다.

13) 신소설이 지닌 ‘사실의 기록’으로서의 특징에 대해서는 권보드래, 2000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122-130면 참조.

망명한 고영근이 우범선을 암살한 까닭은 개인적으로는 복권(復權)을 위해서였다고 알려져 있다. 우범선은 1895년 을미사변 당시 별기군 참령관이었음에도 민비 참살을 방조한 죄로 일본에 망명해 있었던 터라, 한국 정부에서는 현상금을 내걸고 자객을 파견하면서 우범선을 쫓고 있었다. 고영근은 국모 살해 죄인 우범선을 처단함으로써 대역(大逆)의 죄를 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 과연 예상대로 한국 정부에서는 고영근을 사면한 후 일본 정부에 송환 요구를 계속했다. 결국 고영근이 송환된 것이 1909년 무렵이라고 하니 『귀의성』에서 거론하고 있는 것은 그 이전, 고영근이 아직 감옥에 있을 때이다. 1903년 12월 26일 1차 재판에서 고영근은 사형을, 종범 노윤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이듬해 2월 4일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12년형으로 감형된 바 있었다.¹⁴⁾ 『귀의성』에서 고영근이 “열두 해 징역”에 처해졌다 한 것은 아마 노윤명의 형기와 혼동한 탓이었을 것이다.

만민공동회에 참여했던 고영근이 국모 살해 죄인 우범선을 암살한 사건을 두고 “제가 잘될 경륜으로 사람 죽이고 당장에 벌역을 입”었다고 요약하고 있는 『귀의성』의 시각은 그 자체로 문제적이다. 하급 군인의 미망인에 불과한 평범한 부인이 참여한 정치적 사건을 논평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충분히 흥미롭다.¹⁵⁾ 하기가 시비(侍婢)에 불과한 점순이 먼저 전 포도대장 이경하의 이름을 돌먹이고 있는 형편이니 말이다. 상선벌악(賞善罰惡)의 이치를 논란하고 있는 이 대목은, 그러나 또한 『귀의성』의 시간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주는 유력한 근거이기도 하다. 침모가 춘천집 살해 계획을 전해들은 것은 춘천집이 아들 거복을 낳은 지 1년 남짓 지나 “돌 잡힌 지 한 달”(105)이 되었을 즈음이다. 춘천집이 서울 올라온 것이 입동머리요(42) 동짓달 초하루에 몸을 풀었다니(52) 이듬해 선달 무렵일 것이다. 침모를 공범자로 끌어들이려던 시도가 수포로 돌아간 뒤 점순이 “내년 봄에 날 따듯할 때까지만”(146) 기다리자고 기약하는 장면이 이같은 추측을 확인해 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양력으로 따져 1905년이나 1906년 초가 배경이라고 할 수 있으니, 1904년 2월 있었던 고영근의 재판 소식이 전해진 다음이요 『단세보』에 이 대목이 연재된

14) 정정영, 1986 「고영근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42-47면.

15) 침모의 아버지는 “배부장”으로 3년 전 사망했다고 한다(32).

1907년 1월보다는 앞선 때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귀의성』의 서사는 1904년이나 1905년 초에서 시작, 1년여 후의 시점에서 마무리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될 만한 것은 점순이와 최가가 경부선 철도를 이용해 도망을 하는 장면이다. 춘천집 모자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점순이와 최가는 “남대문 정거장에서 오후에 떠나는 기차를 타고 대전”(하 73)까지 간다. 그리고 바로 그 날 밤 지전 뭉치가 든 가방을 도둑맞는다. “기차표는 아니 잃은 고로” 이튿날 부산까지 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뭉치돈을 잃어버린 것은 큰 타격이다. 둘은 김씨 부인에게 거둬 편지를 써 돈을 요청하고, 춘천집의 아버지 강동지는 이 과정에서 둘의 거처를 탐지해 내 복수할 계획을 세운다. 처음부터 “부산으로 도망할” 예정이었던 점순과 최가가 대전에서 하룻밤을 묵은 까닭에 서사의 세부적인 진행이 굴절된 것이다. 그렇지만 대전에서 기차를 내린 것이 둘의 선택은 아니었던 듯싶다. 경부선이 운행을 시작한 것은 1905년 1월 1일이었지만, 같은 해 4월까지도 명실상부한 직행 운행이 없었다. 러일 전쟁 때문에 속성으로 진행된 공사였던지라 야간 운전시의 위험이 높아 도중에 대전에서 1박을 했기 때문이다. 직통 운전이 시작된 것은 5월 1일부터였다.¹⁶⁾ 점순과 최가는 바로 이 시기에, 즉 1905년 1월 1일에서 4월 30일 사이에 경부 철도를 이용했던 셈이다. 이렇게 보면 『귀의성』의 서사가 펼쳐지는 시간대는 대략 1904년 초에서 1905년 중반까지라고 특기(特記)할 수 있다. 작가 이인적이 정확히 이 시기를 염두에 두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귀의성』 연재의 시점과 별 상거(相距) 없는 동시대를 그려내고 있었다고 보는 데는 무리가 없을 터이다.

3. 근대적 세계 속의 설화적 시간

그리고 보면 『귀의성』만큼 근대 문물의 존재를 자주 내보이고 있는 소설도 드물다. 김승지가 첩을 얻었다는 소문을 들은 부인은 시동생을 시켜 “급히 통

16) 『朝鮮鐵道史』 卷 1. 朝鮮總督府 鐵道局, 1929, 534면. 경부철도 속성 공사에 대해서는 정재정, 1999 『일제침략과 한국 철도』, 서울대학교 출판부, 215-221면 참조.

신국에 가서 춘천으로 전보”(17)를 보내게 하고, 춘천집은 서울 올라온 첫날 “종로에서 밤 열두 시 종 치는 소리”(36)를 들을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며, 같은 날 밤 우물에 뛰어들려다 낙상(落傷)하여 “시꺼먼 옷 입은” 순검에게 구조된다. “사면으로 뗏장을 놓아 짚신 신은 발로 더디기 좋게 만든” 재래의 우물이 아니라 “판자쪽 같은 돌”로 마무리한 개량 우물이어서 발에 익지 않은 까닭에 “촌놈이 장판방에서 미끄러지듯” 했던 것이다(42).¹⁷⁾ 자살 기도 직후 춘천집은 한성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데, 간호부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백로같이 흰 복색한”(46) 일인(日人)이다. 춘천집이 다시 자살을 기도한 것은 두 달쯤 후, 남문(南門) 근처 전차 철로를 배고 누워서이며, 이후 근심 가실 날 없는 생활 속에서도 안부 편지는 꼬박꼬박 고향으로 날아간다. 춘천집 모자를 살해한 점순과 최가가 도피 후 쓴 편지는 “나는 듯한 경부철도 직행차를 타고(...) 우편국을 잠깐 지나서”(하 75) 김승지 부인 손에 전달되며, 부인은 남몰래 “진고개 우편국에 가서” 답장 부쳐줄 사람을 찾느라 애를 태운다(하 76). 강동지와 결탁한 판수가 점순과 최가를 겁주며 하는 말도 재판소니 전보니 하는 따위이다. 김승지 부인까지 죽여 복수를 끝낸 후 강동지는 심지어 “경부철로 첫 기차 떠나는 것을 기다려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산서 원산 가는 배를 타고 함경도에 내려가”는 우회로를 거쳐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하고 있다(하 124). 지리상으로야 서울에서 바로 함경도를 거쳐 러시아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택하는 쪽이 나았겠지만, 기차와 운선의 위력은 우회를 불사케 할 정도로 대단하다. 이처럼 운선·기차·전차는 물론이고 편지·전보·환전과 경찰·재판소, 그리고 병원에 이르기까지, 『귀의성』은 중요한 신문물을 두루 섭렵하고 있다.

근대적 시간 체계의 도입은 특히 중요하다. 『귀의 성』에는 몇 차례에 걸쳐 “밤 열두 시 종 치는 소리”(36), “종각에서 오정 열두 시 치는 소리”(61), “밤 열두 시 종”(하 52) 등이 등장하는데, 24시간이라는 새로운 분할을 알려주는 지표는 이뿐만이 아니다. 김승지의 집에는 값비싼 “자명종”(61)이 있고 점순

17) 춘천집 자살 기도 장면이 함축되어 있는 우물 개량사업 및 그 관리에 대해서는 이승원, 2001 『근대 계몽기 서사물에 나타난 ‘신체’ 인식과 그 형상화에 관한 연구』, 인천대 석사논문, 80-81면 참조.

은 침모에게 살인을 사주하면서 “내일 밤 열한 시”(115)를 약조하며, 시간의 흐름은 “해가 열시 반이나 되도록”(43)이라는 감각으로 측정된다. 해가 점점 치솟다 기울어 가는 이치야 그대로이지만, “열시 반”이라는 관측은 낯설다. “오늘 식전 일곱 시 사십 분에 떠나는 기차에 임공사가 일본 간다고”(62) 할 때의 정교한 시계는 더욱 그렇다. 하야시 곤스케[林權助]라는 일본 공사의 이름보다 더욱 낯설었던 것은 하루를 스물 넷으로, 다시 60으로 나누는 분할의 체계였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24시간제는 『귀의성』에 자연스럽게 삼투해 있다. 24시간제가 도입된 지 겨우 10년 남짓이지만, 새로운 시간 체계는 일상적 감각으로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몇 달 전 발표된 『혈의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특징이다.

24시간제 외에 시간을 재는 다른 지표는 어떤가? 1896년 1월 1일 도입된 서양식 시간 체제는 서력 기원, 태양력, 7요일제 및 24시간제였다. 24시간제는 이 중 가장 미시적인 구분에 속한다. 『귀의성』은 이 미시적인 구분을 체화한 정도에서는 철저한 듯 보이지만, 날짜나 연도의 체계에서라면 사정이 다르다. “입동머리”(42), “동짓달 초하루”(52), “음력 삼월 보름”(하 21), “음력 사월 보름날”(하 99) 등 『귀의성』의 중요 사건은 모두 음력의 감각에 따라 기술된다. 특히 춘천집 모자의 죽음을 음력 3월 보름에 배치하고 점순·최가의 죽음을 꼭 한 달 후인 4월 보름에 배치한 설정은 달이 차고 이지러짐에 따라 날짜를 헤아리는 음력을 불가결한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양력이 채택된 다음이지만 누구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일찍이 존재하지 않았던 미시적 시간은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었지만, 예전부터 있었던 음력의 체계와 경쟁해야 했던 시간 단위는 사정이 다르다. 『귀의성』에서뿐 아니라 다른 신소설에서도 그러하였다.

(박) 그것이 두견화가 아니냐. 세월이 덧없이 쉽게도 간다. 옳지. 금년에 이월 한식이지. 삼월 한식 같으면 아직 못 피었을 터이지.

(갑) 제가 진사님께 말씀들으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셔요. 절기가 음력은 들락날락해도 양력은 해마다 그 날이지 변하지 않는데. 양지 바른 데는 꽃이 먼저 피고 응달은 나중 핀다 하셔요.¹⁸⁾

18) 이해조, 1908 『고목화』, 박문서관, 43면.

이해조의 『고목화』에는 절기와 역법을 절충시키는 종래의 체계보다 양력이 훨씬 일관성 있음을 논하는 대목이 나온다. 그렇지만 등장 인물의 입을 빌어 양력의 합리성을 논하면서도 이해조 역시 음력의 오래된 감각을 버리지는 못한다. 권진사가 도적떼에게 납치당한 것은 “팔월 그믐께”(4), 도적들이 납치를 불사하리 만치 절박하게 두목감을 찾고 있었던 까닭은 전 두령 마중군이 “칠월 백중날 안성장을 치러 갔다가”(9) 체포되어 죽음을 당했기 때문이다. 기차가 도착하면서 내는 굉음을 “오륙월 소낙비에 천둥”(89) 같다고 비유할 때의 5~6월도 물론 음력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하기는, 근 10년 일본과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음력이라곤 접할 수 없었을 『혈의 누』의 옥련마저 “광무 6년 (음력) 7월 11일”¹⁹⁾로 날짜를 적는 비상한 기억력을 발휘하고 있는 형편이다.²⁰⁾ “그 편지 부치던 날은 광무 6년 (음력) 7월 11일인데 부인이 그 편지 받아보던 날은 임인년 음력 8월 15일이라”고 했으니, 서력 1902년이 옥련의 편에서는 “광무 6년”으로 조선에 머무르고 있던 김씨 부인의 입장에서는 “임인년”으로 변주되고 있기도 하다.

광무(光武) 연호와 간지(干支)에 따른 명명 사이의 괴리가 보여주듯, 기년(紀年) 역시 골칫거리다. 대한제국 설립 이후 한국에서는 한꺼번에 여러 개의 기년을 쓰는 일이 일반화되었다: 고조선 건국 기년, 기자(箕子) 조선 기년, 조선 건국 기년, 황제 즉위 기년, 대한제국 건립 기년, 일본 천황 및 중국 황제 기년 등. 1909년 한일 강제병합 직전의 『대한매일신보』를 보면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연호가 나란히 인쇄되어 있다: 단군 개국 4242년, 기자 원년 3031년, 대한 개국 518년, 일본 명치 42년, 청국 광서 34년, 음력 무신 12월 초 10일 신유. 서력 1909년 1월 1일과 융희 3년 1월 1일이 상단에 인쇄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다.²¹⁾ 바야흐로 여러 개의 시간대를 동시에 살아야 하는 삶이 펼쳐진 셈이다. 시·공간의 규정이 정체성 형성에서 핵심적인 계기임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1894년 청국 연호를 폐지하고 1897년 대한제국으로의 독립을 선포하면서 크게 논란거리가 되었던 것도 이 문제였다.

19) 이인직, 1907 『혈의 누』, 김상만 책사, 93면.

20) ‘광무’와 ‘음력’을 摘示하고 있는 주체는 형식상 서술자이지만, 소설 속에서 실제 대리자를 찾는다면 옥련을 들 수밖에 없겠다.

21) 1910년 편집 체재의 변화 이후 음력 및 중국·일본의 紀年은 사라진다.

학부대신 신기선씨의 상소를 들으니 조선 국문을 쓰고 청국 정삭을 폐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하였은즉 병자호란을 생각지 못함이요 시족 학부대신이 이런 무례한 말을 하니 소위 의병인지 동학과 상종이 많아 아마 그 사람들 의견과 같아진 것이라 하며(...) 국체를 손상하고 간신히 된 독립국을 도로 청국 속국을 만들자는 경영이요(...) ²²⁾

춘천부 관찰사 이재곤씨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소지 종이를 인찰지와 국문과 전양을 못 쓰게 하고 백지와 병신을 쓰라 하며 경무관보와 총순과 순검들 검은 복색을 못 입게 하며 군대가 비도를 잡으면 흑 죽이지 못하게 한다니 이는 새로 한 학부대신 신기선의 제자요 의병의 친구라(...) ²³⁾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청일전쟁 이후의 변화를 “청국 속국”에서 “분명한 독립국”으로의 자립으로 받아들인 것은 주류적인 인식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공식적인 천명의 수준에서는 계속 지지되고 강화되었다. 독자적인 연호 채택 및 국문의 공식화는 국가의 권위를 새로이 정립하는 과정과 나란히 가는 것이라 했다. 독자적인 연호와 국문을 부정하는 것은 “인찰지”, 즉 국가의 권위와 “경무관보와 총순과 순검들 검은 복색”, 즉 새로운 문명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검은 색은 북성(北星)을 표상하므로 불길한 색이라는 식의 해묵은 인식을 고집한다면 박래(舶來)의 제도는 자리잡을 수 없었던 것이다. 연호의 선택은 이같은 충돌의 와중에서 특히 핵심적이었다. 중국 대륙을 청 왕조가 차지하고 난 후에도 오래도록 명나라 연호를 고집했던 역사가 있었던 만큼 ²⁴⁾ 극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했다. 시·공간의 좌표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시금석이다. 어느 나라이건 자국을 중심으로 세계 지도를 그리는 것이 이 때문이고, 1900년대 당시 일본이 한국 시간을 동경시(東京時) 기준으로 30분 앞당겼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22) 『독립신문』 1896. 6. 9.

23) 『독립신문』 1896. 6. 18.

24) 『열하일기』 첫머리에 이 사실이 인상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무엇 때문에 後三庚子라고 할까?(...) 승정 기원 후 세 번째 경자년이란 말이다. 무엇 때문에 승정 연호를 쓰지 않았을까?(...) 강을 건너면 곧 청인들이 산다. 세상이 다 청나라의 연호를 쓰고 있는데 구태여 승정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어찌서 드러내 놓지는 못하면서도 승정이라고 부를까? 명나라는 중국이다. 우리 나라가 처음으로 승인을 얻은 형제 국가인 때문이다”(박지원, 리상호 옮김, 1955 『열하일기』, 평양: 국립출판사, 23면).

1900년대는 혼란 속에서 다양한 시간 의식을 동시에 실험하고 있었다. 지금은 서력 기원을 채택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도 20세기 초 기년 선정을 위한 제안이 다양하게 펼쳐져 그 중 리우스페이[劉師培]의 황제기년설(黃帝紀年說)이 각별한 호응을 얻은 바 있다.²⁵⁾ 이렇게 따져 보면 『귀의성』에서 보이는 다양한 시간성의 교차가 특별한 것은 아니다. 24시간제의 잦은 적용과 음력의 채택, 그리고 소설 말미에서 풍기는 일종의 무시간성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점이 유다를 뿐이다.

그 뒤 쓴 후에 삼학산 깊은 곳에 춘삼월 꽃 필 때가 되면 이상한 새소리가 들리는데, 그 새는 밤에 우는 새라. 무심히 듣는 사람은 무슨 소린지 모르지마는, 유심히 들으면 너무 영절스럽게 우니 말재기가 그 새소리를 듣고 춘천집의 원혼이 새가 되었다 하는데, 대체 이상스럽게 우는 소리라.

시앗 되지 마라

시앗 시앗

시앗 되지 마라

시앗 시앗

시앗새는 슬프게 우는데, 춘천 근처에 시앗 된 사람들은 분을 뒷바같이 바르고 꽃 떨어지는 봄바람에 시앗새 구경을 하러 삼학산으로 올라가니, 새는 죽었는지 다시 우는 소리 없고 적적한 푸른 산에 풀이 우거진 둥그런 무덤 하나 있고 그 옆에는 조그마한 애총 하나뿐이더라. (125)

1905년 음력 3월에서 4월 사이로 특기할 수 있는 『귀의성』 하편의 시간대는 실상 『만세보』 연재 시기와 대강 일치한다. 그렇지만 마지막 부분, 복수를 끝낸 강동지가 딸과 손자의 시신을 수습해 춘천 삼학산에 안치했다는 경과가 서술되고 난 후에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이 순간 『귀의성』은 갑자기 설화의 세계로 이행한다. 배경 시간을 따지면 불과 한두 해 전에 벌어진 일을 두고 “춘삼월 꽃 필 때가 되면 이상한 새소리가 들리는데”라 하여 여러 해를 두고 거듭된 반복을 전하는 듯한 태도를 취할뿐더러, “춘천집의 원혼이 새가 되었다”는 설명을 곁들이기까지 한다. 『만세보』에 강동지의 복수담이 한창 연재될 무렵이 1907년 3월에서 5월 사이이고 단행본 『귀의성』 출판 광고가 처음 난 것이 5월 31일이니²⁶⁾ 춘천집 모자가 삼학산에 묻힌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았

25) 김월희, 2001 「20세기 초 중국의 문화민족주의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78면.

는데, 춘천집의 사연은 벌써 설화로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직전까지 명료했던 『귀의성』의 당대성은 이 지점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만다. 전차·기차·윤선이나 시계·우편국 등 근대 문물의 잦은 등장에도 불구하고 『귀의성』이 “구소설적 양식에 구소설적 주제”²⁷⁾를 표현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귀의성』은 마지막 대목에서 시앗새 설화를 들려줌으로써 현재와 멀리 떨어진 과거, 시간의 흐름이 의미가 없는 세계 속으로 이동한다. 설화적인 무시간성의 세계에서 울리는 ‘귀(鬼)의 성(聲)’— 최종적으로 『귀의성』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이 인상이다.

4. 넓은 질서와 새로운 수사학

삽화의 수준에서는 신문명의 면면을 다채롭게 보여주고 있지만, 실상 『귀의성』에서 그 인상이 깊이 새겨지는 경우는 드물다. 미시적 시간에서는 24시간제를 자주 보여주면서도 날짜와 연도를 헤아릴 때는 옛 감각에 의지하듯, 전차·기차·윤선을 보여주고 경찰·병원·우편 제도를 소개하면서도 『귀의성』의 묘사는 철저히 부수적인 데 그친다. 예컨대 『귀의성』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교통수단은 기차이지만, 결말에서 보이는 설화적 세계의 압도 속에서 이 사실은 거의 잊혀질 지경이다. 기차 자체에 대한 묘사가 거의 없었기에 더욱 그렇다. 점순과 최가가 도망칠 때, 강동지가 복수를 위해 서울과 부산을 오갈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라디보스톡으로 떠날 때 등 기차는 여러 차례 언급되지만, 이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묘사라고는 “풍우같이 빨리 가는 기차”(하 114)라는 구절이 고작이다. 사건을 매개하지도 못한다. 옥련과 구완서의 만남을 중개했던 『철의누』의 기차, 조박사라는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고 대단원의 해후를 준비했던 『고목화』의 기차와는 달리 『귀의성』의 기차는 그저

26) 『만세보』에 연재되던 『귀의성』은 1907년 3월 이후 여러 차례 연재가 중단되다가 5월 31일, 단행본 첫 광고가 실린 날을 마지막으로 강동지의 복수가 일단 마감된 시점에서 중단되고 만다. 연재가 자주 중단된 사유에 대해 『만세보』 측에서는 “소설 기자가 세전에 서술한 옥련전을 개간하는 데(...) 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1907. 3. 8).

27) 임화, 앞의 글, 『조선일보』 1940. 2. 22.

공간의 확산에 기여할 따름이다.

『귀의성』에서 사건 전환의 계기가 되는 것은 오히려 가마나 인력거 등 다분히 전근대적인 교통 수단이다. 근대 이후 도입되었지만 근대의 표지로서의 상징성은 훨씬 낮은 인력거는, 먼저 춘천집의 두 번째 자살 기도 장면에서 등장한다. 춘천집이 전차에 치어 죽을 작정으로 선로에 납작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웬 사람이 걸려 넘어진다. 어둠 때문에 춘천집을 미처 보지 못했던 인력거꾼이다. 놀라 일어나 보니 인력거꾼은 오히려 멀쩡한데, 인력거에 타고 있던 부인이 호되게 넘어져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이 부인이 바로 얼마 전 김승지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침모로서, 춘천집과 침모는 이 사고를 계기로 “두 설움이 같이 만나”(57) 의지하며 살게 된다. 또 한 차례 인력거가 등장할 때도 사고와 우연한 만남이라는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점순의 피임에 넘어가 춘천집 살해를 약조했던 침모가 어머니의 충고를 듣고 마음을 바꾼 다음, 김승지 본가에 들렀다 춘천집 거처로 향하는 길에 인력거는 춘천집이 자살을 기도했던 바로 그 장소를 지난다. 침모가 막 춘천집 처음 만나던 순간을 떠올리고 있을 때, 맞은편에서 오던 인력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딪혀 온다. 놀라서 살펴보니 맞은편 인력거에 탄 승객은 서툰 남짓한 남자인데, 이 사람이 바로 점순이의 공모자 최가이다. 자칫하면 침모가 그 음모에 넘어갈 뻔했던 인물, 그러나 둘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간다. 첫 번째 인력거 사고가 새로운 관계의 계기였다면 두 번째 사고는 관계의 해소 또는 무산과 연결되어 있다. 인력거라는 교통수단을 통해 관계가 펼쳐지고 또한 접히거나 어긋나는 것이다. 춘천집이 서울에 올라올 때, 그리고 살해당하는 날 탔던 가마라는 교통수단 역시 선명한 인상을 남긴다. “비록 상사람이나 사족 부녀가 따르지 못할 행실이 있던”(22) 춘천집이 집을 멀리 벗어나는 것이 늘 가마를 이용해서이고, 춘천집의 처지가 바뀌는 것이야말로 『귀의성』의 서사를 추동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기차가 텅 빈 기호에 그치는 반면 가마나 인력거는 우연한 만남이나 결정적인 사건을 이끌어내면서 서사의 풍성한 토양이 된다. 범람하는 근대는 뜻밖에도 무능력하고 만만찮아 보이는 쪽은 전근대의 위력이다. 이렇게 보면 『귀의성』에 등장하는 신문물의 의미란 다분히 의심스럽다. 수사적 비유에서까지 새로운 문물이나 지식을 동원할 만큼 근대의 기호

를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욱 그렇다.

그때는 달그림자가 지구를 안고 깊이 들어간 후이라 강동지 집 안방이 글속같이 어두웠는데(3)

철환보다 빨리 가는 속력으로 도루래미 돌아가듯 빙빙 도는 지구는 백여도 자전하는 동안에 적설이 길길이 째였던 산과 들에 비단을 깔아놓은 듯이 푸른 풀이 우거지고 남산 밑 도동 근처는 복사꽃 천지러라(하 1)

오고 가는 공기가 마주쳐서 빙빙 도는 회오리바람(하 3)

말하는 동안에 지구가 참 돌아가는지 태양이 달아나는지 길마재 위에 석양이 빗갸더라(하 5)

강동지 코고는 소리가 춘천집 살던 도동 앞에서 밤 열두 시 전차 지나가는 소리같이 웅장하고(하 25)

“글속같이 어두”운 밤이 오는 것은 달이 태양을 가리는 궤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봄이 찾아오는 것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타원형으로 공전하기 때문이다.²⁸⁾ 회오리바람은 국지적인 기압 차이에서 비롯된 현상이고, 날마다 저녁이 찾아오는 것은 지구가 자전하는 까닭이다. 코고는 소리가 요란한 것은 늦은 밤 요란한 전차 소리에 비기면 꼭 적당하리라. 『귀의성』의 작가는 몇 번이고 평범한 현상에 새로운 지식을 들이댄다. 낮과 밤이 흐르고 그믐과 보름이 교차하며 계절이 바뀌는 것은 예로부터 익숙한 현상이지만, 이를 지구의 자전과 공전 같은 자연과학적 사실에 바탕해서 설명하는 수사학은 낯설다. 근대적 지식의 지평 속에서라면 익숙한 현상마저 이질적인 것이 된다. 『귀의성』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수사학은, 이인직과 더불어 최고의 신소설 작가였던 이해조가 『고목화』 『빈상설』 등 초기 작품에서 보여준 수사학과 정확히 대립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고목화』 『빈상설』에 자주 등장하는 비유는 매포구를 “비들기장 문”에, 빨간 색 차표를 “성냥갑 한편 조각”에, 시키면 기관차를 “뒤주”에 비기는 것 같은 표현이다. 그밖에 기차 소리를 “오륙월 소낙비에 천둥”에 비유하고 새로 닦인 길을 “타작마당”에 견주면서, 이해조는 익숙한 것을 앞세워 근대 문물의 이질감을 완화시키려 시도한다.²⁹⁾ 반면 『귀의성』은 근대 문물을 설명해야 할 대상이

28) 이인직은 이 대목에서 ‘공전’이라고 써야 할 것을 ‘자전’이라고 쓰는 착오를 범하고 있다.

아니라 설명의 매개로 삼음으로써 더 이상 근대가 낫선 것일 수 없음을 웅변한다. 새로운 문물은 친숙한 대상이 되어야 하고 옛 것과의 갈등을 넘어서야 한다. 『고목화』 『빈상설』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 근대 문물의 자기화를 위한 팽팽한 긴장은 사라져도 좋다는 뜻이다.

긴장의 해소는 신문명을 일종의 장식으로 다룰 수 있게 해 준다. 춘천집이나 강동지, 점순 등에 있어 근대 문물은 낫선 경이여야 하겠지만, 실상 이들은 기차·전차나 경찰·우편·병원 제도 앞에서 스스로 없다. 너무도 익숙한 태도라 근대 문물이라는 기호가 제 존재를 주장하기 힘들 정도이다. 곳곳에 등장하는 근대적 기호는 서사적 핵심을 구성하지 못한 채 눈에 띄지 않는 위성으로 시종한다.³⁰⁾ “부산으로 내려갈 때 머리 깎고 양복을 입”어(하 98) 점순과 최가의 눈을 속였던 강동지처럼, 『귀의성』 또한 새로운 의장(衣裝)을 걸쳤음에도 결국 설화의 세계로 수렴된다. 설화적 세계의 무시간성을 깨각거리는 시계 바늘이 장식하고 익숙한 현상에 새로운 비유를 끌어들일지라도, 무시간성은 압도적이고 근대적 문물의 인상은 파편적이다. 신문명을 친숙하게 다루는 것은 미시적이거나 삼화적인 수준에서의 일일 뿐 『귀의성』의 인물들은 여전히 낯은 세계 속에 살고 있다. 수사학의 층위에서도, 신문명을 매개로 한 비유보다 점점 광범해지는 것이 중국 역사의 일화를 빈 표현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예들이다: “의사는 방통이 같은”(9), “지혜 많은 제갈공명을 얻고 물을 얻은 고기같이 좋아하던 한소열”(80), “박낭사 철퇴 소리에 놀란 진시황 같이”(133), “춘향의 옥중에 점 치러 들어가는 장님의 마음같이 춘심이 탕양하여”(134), “증자 같은 성인 아들을 둔 증자 어머니도 그 아들이 살인하였다 하는 말을 곧이 듣고 베틀 짜던 북을 던지고 나간 일도 있었거든”(하 32). 그리고 “운우무산에 초양왕의 꿈을 꾸고 수록산청에 당명황의 근심하듯”(하 50), 또는 “손빈이가 마룻에 복병하고 방연이를 기다리듯”(하 101).

『귀의성』에는 새로운 세계 해석을 끌어낼 만한 단편이 풍성하게 예비되어

29) 『고목화』 『빈상설』에 나타난 수사의 좀더 자세한 의미에 대해서는 권보드래, 2000 「양가성의 수사학: 이해조의 『고목화』 『빈상설』을 중심으로」, 이용남 외, 『한국 개화기소설 연구』, 태학사 참조

30) 서사물에서의 사건을 중핵과 위성으로 구분하는 데 대해서는 S.Chatman, 김경수 옮김, 1995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민음사, 60-63면 참조

있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현실화되는 일은 드물다. 침모가 한때 살인 음모에 동조했다가 마음을 고쳐먹는 대목은 선·악 구분의 절대성에 대한 회의를 낳을 수 있는 계기이고, 남편과 자식을 버리면서까지 부의 축적과 신분 상승에 골몰하는 점순은 “김승지댁 안방에 화약을 터뜨리고 싶소”(하 78)라는 불평을 서슴지 않을 정도로 신분의 관습적 굴레를 가볍게 넘어서고 있지만, 그럼에도 침모는 선인(善人)이요 점순은 충실한 악비(惡婢)로 시종하고 만다. 김승지 부인의 경우는 특히 흥미롭다. 남편에게 뉘드리하듯 늘어놓는 말에 의하면, 김승지 부인은 “영감은 열세 살, 나는 열네 살에 결발부부 되어”(93)서 벌써 나이 마흔이라고 한다(93). 27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니, 꽃다운 열아홉인 춘천집에 견줄 수 없을 것은 정한 이치이다. 더욱이 서론 넘어 겨우 하나 본 자식마저 세 살 때 죽고 만 터라 남편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절박한 처지이다.³¹⁾ “쪽박을 차더라도 시앗만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한숨짓고 “재물도 성가시다. 영감께서 돈만 없어 보아라. 어떤 빌어먹을 년이 영감께 오겠느냐”(78)고 탄식하는 안타까운 집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살뜰하게 남편 건강을 챙기면서 “마누라 없이는 참 못 견디겠다”(44)는 단란한 광경을 연출하기도 하고 “죽어 후생에는 나도 남자가 되었으면”(93) 하는 원억(冤抑)을 토로하기도 하는 김승지 부인의 형상이란 자못 착잡하다. 그러나 이 복잡한 사연의 부인에게 낙착되는 역할은 결국 다른 가능성 없는 악역이다. 강동지는 김승지 부인을 죽이기 전 “너같이 곱게 자라난 계집에 탐이”(하 118) 난다면 서 자기 정체를 숨기는데, 이런 위장이 굳이 필요했던 이유는 부인을 “잡년”, “망한 년”으로 매도하기 위해서이다. “세상에 다시없는 깨끗한 양반의 여편네인 채하던 년이 그렇게 쉽게 몸을 허락한단 말이나”(하 119~120)— 김승지 부인에 대한 최종적인 단죄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말이다. 칼을 든 흥한 앞에 “누가 아니 듣는다고 무엇이랴 합더니까”라고 한 한 마디가 음탕의 증거가 되고 죄악의 상징이 된다. 간간이 토로하던 복잡한 심경이 한순간에 무화되어 버리는 것은 물론이다. “물같이 깊은 정이 서로 깊이 들어서, 이 몸이 죽어 썩

31) 춘천집의 아들 거북 역시 세 살의 나이로 죽음을 맞는다. 이 묘한 일치는 첩과 그 자식 때문에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본처의 심리적 한계선을 포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라도 정은 천만년이 되도록 썩지도 않고 변치도 아니할 듯한 마음이 있다”(53)는 김승지와 춘천집 사이의 인연 역시 모호한 부정형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귀의성』의 인물들은 단순한 선·악 구도를 떠나 복잡한 내면을 열어 보이기 시작하는 듯하지만, 결국 소설을 지배하는 것은 선과 악의 이분법이다. 이 이분법에서 가장 애매한 위치에 있던 김승지와 침모가 결합, 여생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결말마저 선·악 구분의 단순성을 지워 버리지는 못한다.

새로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근본적인 질서는 바뀌지 않는다. 신문명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다. 사정이 여기서 끝난다면, “요새같이 법를 밝은 세상에 내가 잘못된 일만 없으면 아무 것도 겁나는 것 없네”(34)라거나 “요새 같은 개화 세상에는 사족 부너라도 과부 되면 간다더라”(35), “사람은 다 마찬가지지(…) 요새 개화 세상인 줄 몰랐느냐”(69) 같은 입찬 소리는 한낱 공염불에 불과할 터이다. 그러나 “머리 깎고 양복을 입”은 강동지의 변화는 단순한 위장에 그치지 않고 존재의 변화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본질의 변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부의 사소한 기형 자체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력인 까닭이다. 점순이나 김승지 부인을 ‘악인’으로 몰아부치고 『귀의성』을 ‘구태의연한 가정소설’로 해석해도 남아있는 잉여 - 문제는 이 잉여의 생생함이다. 삽화는 삽화에 불과한 채로 서사의 방향을 조율하고 중단된 가능성은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존재를 예비한다. 아무리 구태의연해 보일지라도, 신소설은 이미 낡은 세계의 존재일 수는 없다.

5. 통합된 균열, 그 사이

옛 것과 새 것이 뒤섞인 이중적 상황은 갖가지 결과를 야기한다. 일부는 옛 것을 지키고 일부는 새 것을 좇는 공존이 전형적인 결과라면, 상호 교착과 변형은 그 필연적인 부산물이다. 신(新)이나 구(舊)나, 달라진 상황 속에서 원형 그대로 작용할 리는 없다. 태음력과 태양력이 공존하고 엽전 5만냥을 지폐 1천원으로 계산하며, 한쪽에서는 천부(天父)를 찾고 다른 쪽에서는 공자를 고집하는 상황 속에서 모든 존재는 탈각(脫殼)을 시작한다. 변화하지 않는 존

재는 있을 수 없다. 존재 자체는 변치 않는 듯 보일지라도 정황과 맥락이 바뀔 때마다 그 의미는 어쩔 수 없이 달라진다. 오래 묵은 설화에서부터 이용되어 온 꿈이라는 장치 역시 마찬가지이다. 오랫동안 꿈은 신뢰할 만한 예지(豫知)의 영역이었고, 드물게 삶의 다른 가능성을 시험하는 장이기도 했다. 조선 설화나 『구운몽』이 보여주듯 결론은 번번이 아무리 빛나고 다채로운 가능성이 라도 무상(無常)하기 그지없다는 것이었지만 말이다.

『귀의성』에도 꿈 이야기는 여러 차례 나온다. 첫 장면부터 춘천집이 악몽을 꾸면서 가위눌리는 장면이고 강동지 부인은 춘천집이 살해당한 직후 흉몽을 꾸고 놀라 깨어난다. 두 경우 모두 꿈은 현실에서는 포착하기 힘든 진상을 알려주는 계시이다. “꿈에는 내가 아들을 낳아서 두 살이 되었는데, 함박꽃같이 탐스럽게 생긴 것이 나를 보고 엄마 엄마 하면서 내 앞에서 허덕허덕 노는데(…) 우리 큰마누라라 하는 사람이(…) 와락 달려들어서 어린아이의 두 어깨를 담삭 움켜쥐고 반짝 들더니 어린아이 대강이에서부터 몽창몽창 깨물어 먹으니(…)”(13). 춘천집이 꾸는 꿈은 1년여 후, 아들이 걸음을 떼고 한창 말을 배울 무렵 실제로 현실화된다. 그 어머니의 꿈 역시 마찬가지이다. “김승지의 마누라인가 무엇인가 그 몫쓸 년이 우리 길순이를 쪽쪽 찢어서 고추장 항아리에 툭 집어뜨리는”(하 25) 흉몽을 꾸는 바로 그 시각, 딸과 손자는 최가의 손에 목숨을 잃는다. 이들 경우에 꿈은 훌륭하게 예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귀의성』은 예지로서의 믿음 긍정할 수 있는 근대적 근거를 알지 못한다. 꿈의 방자한 투시력을 부정해야 옳겠지만, 오래된 관습을 저버리기도 쉽지 않다. 다만 다른 유형의 꿈을 끌어들이므로써 일종의 완충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예컨대 침모는 춘천집을 죽일 것을 약조한 날 밤 관왕(關王)이 나타나 자기 죄를 꾸짖는 꿈을 꾸는데, 이는 미래의 예시라기보다 심리의 반향이라고 보아야 할 꿈이다. 예지의 비급과 심리의 반향, 꿈이라는 장치는 이 두 축 사이에서 갈등한다.

다른 징조의 경우는 부정의 색채가 한결 뚜렷하다. 이인직의 다른 소설인 『혈의누』에서 옥련 어머니가 8년만에 옥련의 소식을 들은 날, 이 날은 아침부터 흉조(凶鳥)인 까마귀가 지붕 위에서 우짖는다. 부인은 “또 무삼 흉한 일이 생기려나배”(88)라고 걱정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리운 딸의 편지

를 받는다. 더욱이 이 편지는 “검정 홀태바지 저고리”를 입어 마치 까마귀 같은 형상의 우체 사령이 전해준 것이니, 관습적인 징조의 해석은 실제 사실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귀의성』에서는 어떠한가? 바람에 떨어지는 복사꽃을 보고 춘천집이 “오늘은 우리 집에 무슨 경사가 있으려나 보다. 꽃비가 오는구나”라고 찬탄하자 홍계를 감추고 1년여 유모 역할을 해 온 점순은 “아직 아니 떨어질 꽃도 몹쓸 바람을 만나더니 떨어집니다 그려”(하 3)라고 말을 받는다. 여기서 징조는 고정된 의미가 아니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다층적 질이다. 암수 한 마리씩 있는 닭장에 햇암닭 한 마리가 들어와 작은 소동이 벌어지는 대목에서도 “고 못된 묵은 닭이 읍니다”라는 의견과 “고 못된 햇암닭 한 마리가 들어오더니 묵은 암탉이 설어서 우나 보다”(101)라는 단정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것은 사건을 해석하는 서로 다른 시각이다. 해석의 올바른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 사이의 충돌이 있을 뿐, 미래를 엿볼 수는 없다.

미래를 점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함정에 빠지기 마련이다. 복수를 행하는 과정에서 강동지가 이용한 것도 상대의 이같은 약점이었다. 개인적인 만큼 더욱 통쾌한 『귀의성』의 복수는 맹인 판수와 강동지의 합작에 의해 이루어진다. 강동지의 사주를 받은 판수가 양복 신사로 변장한 강동지와 거짓 싸우는 체 하면서 점순 및 최가의 주의를 끌고 이어 신통한 점괘를 뽑아내 마음을 온통 현혹시킨 다음 함정에 빠뜨려 살해하는 순서다. “새파랗게 젊은 여귀인(女鬼人)이 해골 깨진 어린아이를 안고”(하 87) 뒤에 붙어 있다고 했으니 점순과 최가로서는 판수의 신통력에 놀랄 수밖에 없다. 그런 다음 김승지 부인이 보낸 돈을 가로챈 자가 아까 양복장이라 하여 최가를 떼어 보내고 다시 점순을 외딴 길로 유인하는 식으로 복수는 착착 진행되어 나간다. 점순과 최가가 점복(占卜)의 권능을 의심 없이 믿는 반면 강동지는 이를 복수를 위한 수단으로 다룰 줄 아는 까닭이다. 미신에 빠져드느냐 아니면 거리를 유지한 채 이용 수단으로 삼느냐에 따라 세력의 우위가 결정되는 셈이다.

신소설은 미혹(迷惑)을 비판하면서도 활용하는 이중성 위에 자리잡는다. 이 이중성이 정연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 목격할 수 있는 것이 『귀의성』의 복수담 같은 구조, 즉 미혹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방식이지만, 이

중성을 혼란속에서 보여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꿈의 예지적 기능을 긍정하고는 곧 비판하는 발언을 결들인다든지, 징조의 관습적 기능을 긍정하고는 바로 부정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식이다. 예지의 능력은 아직 완전히 긍정될 수도 부정될 수도 없다. 긍정이나 부정, 둘 중 한 쪽을 택해야 한다는 초조가 생겨나기 시작했을 뿐이다. 꿈과 징조의 긍정이나 부정— 이 둘은 무질서한 공존이 아니라 상호 부정을 통한 보완의 관계,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질 수 없는 이중성의 관계를 맺는다. 이 사이에 균열이 있을 수밖에 없음은 당연한 일인데, 『귀의성』의 주요 서사는 균열을 봉합하는 방식에서 ‘전근대’라 불릴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강동지가 “재물은 재물대로 빼앗고 원수는 원수대로 갚으려는 경영”이라는 미심쩍은 이유를 내세워 근대적 사법 제도에 호소하는 대신 개인적 복수의 길을 택한다거나, 병원·기차·우편 등 신문물의 인상이 마지막의 구전 시가에 의해 지워지는 것이 그렇다. 균열의 봉합에서 결국 전근대적 세계에 기울어 있다는 사실— 『귀의성』이 근대의 ‘미달’ 내지 ‘결여’로 특징지어지는 것은 이 때문일 터이나, 균열 자체가 제기하는 문제의 무게에 주의한다면 『귀의성』은 또한 어떤 신소설보다 다채롭게 균열을 형상화하고 있는 소설로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강사)

〈Abstract〉

The Problem of Domestic Fiction

Kwon, Boduerae

Sinsosŏl, meaning 'new novel' and being created mainly in 1900's, has been estimated as something with fatal weakness. It didn't prove itself an ideological value or political energy. With the exception such as *The Bloody Tear*(『血의淚』) or *The Silve-like Snow*(『銀世界』), almost all the sinsosŏls were focused on the domestic conflicts. Modernity of new ideological and political orientation couldn't be rooted in those domestic fictions. However, if the implication of modernity extended to the cultural and symbolic areas, the domestic fiction can be viewed as the product of modernity project. *Sound of the Ghost*(『鬼의聲』) clearly shows the possibility of such a reevaluation.

Key Words : sinsosŏl, domestic fiction, modernity